



슈퍼매치 승리 거둔 수원삼성 수원삼성 선수들이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 37라운드 FC서울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뒤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프로농구 DB, 정관장 97-80 제압

16경기 만에 전 구단 상대 승리...삼성, 원정 20연패



프로농구 원주 DB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전 구단 상대 승리를 거뒀다.

DB는 26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안양 정관장과 경기에서 주축들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97-80 완승을 거뒀다.

1라운드에서 유일하게 패배를 안겼던 정관장을 잡은 DB는 16경기 만에 전 구단 상대 승리를 신고했다. 시즌 1호다.

직전 경기에서 서울 SK에 패했던 DB는 14승(2패)째를 신고하며 선두를 굳건히 했다. 정관장에 당했던 정규리그 상대 11연패에서도 탈출했다.

오마리 스펀 맨이 두통을 이유로 결장한 정관장(9승6패)은 주춤하며 2연패에 빠졌다.

DB는 무려 7명이 두 자릿수 점수를 올리는 고른 활약을 펼쳤다.

디트릭 로슨과 이선 알바노가 각각 15점 8리바운드 6어시스트, 11점 8어시스트로 진두지휘했다. 이밖에 김종규(14점), 이용우, 김영현, 제프 위더(이상 12점), 강상재(10점)가 고르게 지원했다.

압도적인 선두 팀답게 특정 선수에게 쏠리지 않고,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했다.

제공권 다툼에서도 리바운드 39개-24개로 압도했다.

정관장에선 가드 박지훈이 16점(6어시스트)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올렸다.

수원 KT는 서울 삼성에 88-83으로 이겼다.

KT는 2연승을 달리며 8승(5패)째를 신고했다. 홈 2연패도 끊었다.

2연패에 빠진 삼성(3승12패)은 역대 최다 원정 20연패라는 불명예 기록을 이었다.

허연경, 또 여자유형 100m 韓 신기록

허연경, 54초49 작성...AG 54초70

황선우, 남 100m 48초57...A기록 못 넘어

수영 국가대표 허연경(방산고3)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후 약 2개월 만에 여자 자유형 100m 한국 기록을 또 새로 썼다.

대한수영연맹에 따르면 허연경은 25일 경북 김천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24 수영(경명) 국가대표 선발대회' 여자 일반부 자유형 100m 결승에서 한국 신기록인 54초49로 우승했다.

허연경은 지난 9월26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 종목 결승에서 수립한 한국기록 54초70을 61일 만에 0.21초 단축하며 올해만 6번째 한국 기록을 작성했다.

이 기록은 여자 자유형 100m 국제수영연맹(World Aquatics) 기준기록에는 0.24초 모자란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연맹은 "연맹 자체 기준기록보다는 빨라 추후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도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후 허연경은 연맹과 인터뷰에서 "전국체육대회 이후 휴식 없이 훈련을 이어가려니 아무래도 지쳐서 연습 때 100% 따라가지 못해 경기장 오기 직전까지 스트레스를 겪었는데 예선에서 생각보다 기록이 잘 나와 자신감이 생겼다"며 "김효열 코치님이 저를 계속 믿어주셨고 저도 해야 할 때는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으로 임하길 잘했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남자부 자유형 100m 결승에서는 황선우(20·강원도청)가 48초57로 1위에 올랐지만 국제수영 A 기준기록에 0.06초 모자라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따지 못했다.

황선우는 오는 27일 오후 예정된 자유형 200m 결승에서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노린다.

황선우는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컨디션은 100%로 끌어올릴 정도로 하지 않아 이번 대회 기록이 제 개인 기록에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1위로 마무리하며 내년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하는데 좋은 발판이 된 것 같다"며 "이를 뒤에 열리는 자유형



수영 국가대표 허연경.

200m 결승 경기에도 기록보다는 내년 세계선수권대회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고 열심히 레이스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중장거리 간판 김우민(강원도청)은 남자 자유형 800m 결승에서 국제수영(AQUA)의 A기준기록 7분53초11보다 0.27초 빠른 7분52초84로 우승하며 2019 광주 대회부터 4회 연속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을 확정했다. 김우민은 2019 광주 대회 때는 자유형 1500m에만 출전했지만

이후 2022 부다페스트와 2023 후쿠오카 대회에서는 2회 연속 자유형 800m 14위에 올랐다. 김우민은 전날 남자 배영 200m에서 우승한 이후(28·서귀포시청)에 이어 남자부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했다.

여자부 김서영(경북도청)도 이날 여자 개인혼영 200m 결승에서 2분12초12로 우승하며 국제연맹 기준 기록을 통과해 2017년부터 5회 연속 세계수영선수권 출전을 확정했다. /뉴시스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노트북 확보해 조사 중

경찰 제출 전 초기화...디지털포렌식 통해 복구 중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휴대전화뿐 아니라 노트북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노트북도 확보해 조사 중이다.

해당 노트북은 경찰에 제출되기 전에 초기화됐다고 알려졌는데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황의조 휴대전화에 있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며 불거졌다. 이 여성은 황의조의 친형수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자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황의조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18일 즈음 기준에 알려진 피해자가 아닌 추가 피해자도 조사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린 2026 국제축

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2차전에 교체 선수로 출전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감독은 "논란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혐의가 나온 게 아니다"며 "저도 40년 축구 인생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추측성도 있었다. 혐의가 명확히 나올 때까지는 우리 선수"라고 했다.

대한축구협회도 뉴시스에 "일단은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황의조의 출전에 대표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판 댓글이 잇따라 달리기 도했다.

이에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23일 "축구협회나 국가대표팀 감독이 가해자의 2차 가해에 동조하는 선택과 인동을 자제해야 할 때임을 자각하기만을 바란다"며 황의조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羅海

해라수산 66번 중매인

자연산 뽕낙지 전문

싱싱하고!! 저렴하게!!

뽕낙지 · 홍어 · 전복 · 하모(갯장어)
곰창김 · 매생이 · 계절수산물

장흥수협대리위판장

전복

●13~15미 31,000 ●9~10미 38,000
●11~12미 34,000 ●8~9미 40,000

국산 홍어

수입	국산
(小박스) 50,000	(小박스) 70,000
(中박스) 70,000	(中박스) 130,000

갯장어(하모)

손질 (1KG) 25,000

회&샤브 선택 ※택배비 5000원 별도

010-2421-3246

장흥군 회진면 해양남시길 135

☎ 농협 02. 2421. 3246. 71 (예금주. 권해라)

66번중매인 해라수산

뽕낙지·홍어·전복·하모·문어

전국.택배.버스.발송